

성삼 후 9주일(연중 17주일) 감사성찬례

집전 / 설교: 최용준 바우로 신부 보혈조력: 정요셉
지휘: 이유니스 반주: 정모니카 선창: 김니콜라

개회예식

†입당성가 255장 다 함 께
†정심(淨心)기도 6쪽 집 전 자
†죄의고백 6쪽 다 함 께
†기원송가 거룩하신 하느님 (9쪽) 다 함 께

말씀의 전례

†본 기도 집 전 자
은혜로우신 하느님,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과 진리를 갈망하는 마음을 주셨나이다. 비오니,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이며, 영원한 생명의 양식임을 깨닫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1독서 열왕하 4:42-44 말 은 이
성 시 시편 145편 다 함 께



- 당신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 당신만이 만세에 |왕이|십니다.
-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실 |되-|고,
○ 그 하시는 일, 모두 사랑의 |업적|이-|다.
- 누구나 쓰러지면 붙들어 |주-|시고
○ 거꾸러지면 일으켜|주|신다.
- 모든 눈들이 당신만 쳐다보고 기다립니다.
○ 철을 따라 양식을 주실 분 당신밖에 |없습|니다.
- 당신께서 손만 벌 |리-|시면
○ 살아 있는 모든 것 원대로 |배|부립니다.
- 주님 가시는 길은 언제나 배|르-|시고
○ 그 하시는 일 모두 사랑의 |업적|이-|다.

◎ 영광이 |성부|와 ○ 성자와 |성령| 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 그리고 영원히, |아-|멘

2독서 에페 3:14-21 말 은 이
†복음환호송 말 은 이
†복음서 요한 6:1-21 말 은 이

설교 바우로 신부
니케아신경 16쪽 다 함 께
교회와 세상을 위한 기도 말 은 이

성찬의 전례

†평화의 인사 22쪽 다 함 께
†봉헌성가 273장 다 함 께
성찬기도 23쪽 1 양 식
거룩하시다 102쪽(C곡) 다 함 께
주의기도 28쪽 다 함 께
성체나눔 29쪽 다 함 께
하느님의 어린양 ... 105쪽(C곡) 다 함 께
성체성가 503장 성 가 대
†영성체후기도 41쪽 다 함 께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을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어 사랑 가운데 상통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교회소식 신 자 회 장

파송예식

†축복기도 42쪽 집 전 자
†파송성가 292장 다 함 께
(†는 일어섬)

	이번 주일(7월 28일)	다음 주일(8월 4일)
1독서	윤희진	백남진
2독서	유정훈	박선희
대 도	정연창	최용욱
다음주일 전례독서	출애 16:2-4, 9-15 시편 78 에페 4:1-16 요한 6:24-35	
성 가	246 574 613, 614 344	
복 사	정선우	보혈조력 정스테반
다음주간 교회청소	관할사제	

(1997-2024 / 교회설립 27주년)



성공회 산본교회

St. Clare's Anglican Church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323번길 21, 청진빌딩 7층 ☎ 031-397-0443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공동체

2024년 7월 28일 성삼 후 9주일(연중 17주일) · 나해 · 녹색

제28-30호

오병이어 - 빵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의 기적



성서의 기적 이야기는 우리의 상식을 시험하는 듯 늘 새롭고 놀랍습니다. 한 아이가 내어 주었던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이미 그것은 '먹을 것' 이상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실 일'을 미리 마음에 두셨다고 성서는 증언합니다. 오병이어(五餅二魚;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의 기적은 많은 이들을 배불리 먹인 사건이 아니라, 놀랍게 불어나는 하느님 나라의 원리를 보여준 사건입니다. 하느님의 권능이 다스리고, 인간의 삶이 희생과 나눔의 재료가 될 때, 그 세계에 들어온 모든 이들이 누릴 삶이 분명합니다. 거기에는 '먹을 것'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 속이느라 자기를 잃어버린 비참한 삶이 아닌, 넉넉하고 풍요로운 마음으로 함께 모인 기쁜 세상이 펼쳐집니다. 주님께서는 이 일을 하시려고 양손으로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들어 감사의 기도를 올리십니다.

성찬례와 오병이어의 기적은 매우 닮은 사건입니다. 빵과 잔에 얽힌 이야기 역시, 하느님 나라의 원리를 보여주는 일입니다. 빵은 인간의 고된 노동으로 일군 삶을 상징하는 재료이고, 포도주는 인간이 피땀을 흘리며 세상의 풍파에 맞서고, 슬픔을 극복했던 모든 노력이 숙성되어 피어오르는 삶의 상징입니다. 빵과 포도주가 제대 위 봉헌제물로 놓일 때, 우리는 그 제물이 의미하는 바대로, 신앙인의 삶 전체를 성찬례가 이루어지는 제대로 가져와 바칩니다. 그 아름답고 애절한 봉헌만이 성변화를 일으킬 재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주님께서 '하실 일'이 펼쳐집니다. 우리의 고된 삶과 주님의 희생이 결합하고, 우리의 정성과 주님의 은총이 결합하여,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만들어지고, 공동체 전체는 그 양식을 누리는 자격을 얻습니다. 그렇게 성찬례는 천상의 잔치를 미리 맛보는 기쁨과 감사의 전례입니다.

교구장 이경호(베드로) 주교 / 관할사제 최용준(바우로) 신부

신자회장 최용욱(어거스틴) / 사제회장 김운권(베네딕트) / 원로회장 한명숙(율리아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휴가, 피세정념 (避世靜念)

세상은 노동으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노동을 전제로 휴식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할 일이 없을 때에 쉬라 하고, 쉬는 일조차도 다음 노동을 위한 재충전으로 봅니다. 그런데 교회는 반대의 관점을 제시합니다. 하늘나라는 참된 쉼이 가장 중요한 가치여서, 교회는 참된 쉼을 전제로 노동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주일 하루를 하느님 안에서 쉬고, 그 기쁨과 감사로 한 주간을 일하라고 권고합니다.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세상 창조와 회복과 완성을 위해 일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노동은 하느님의 창조에 참여하는 거룩한 일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하느님께서 기꺼이 쉬시며 손수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을 기뻐하고 즐기십니다. 하루를 안식일로 삼아서, 모든 피조물이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고 누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쉼은 하느님의 창조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누리는 거룩한 휴식입니다.

일과 봉사로 지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함께 좀 쉬자." (마르 6:31) 오래전부터 교회는 주님의 '쉼'의 가르침을 '피세정념 避世靜念'(피정)으로 이해하고 이를 위해 특별한 시간을 마련하도록 권했습니다. 피세정념은 분주한 세상 일을 피해서 마음을 정리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복잡한 세상사에서 오는 온갖 오염된 시선을 거두고 하느님의 시선을 회복하며 영적인 마음을 갖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특별한 시간을 갖는 일이 피정입니다.

소중한 휴가 기간을 "피정(避靜)"의 시간으로 보내는 일은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일하지 않는 시간에 세상 방식으로 노는 일도 좋지만, 세상을 피하여 하느님 안에서 마음으로 쉬는 "피세정념"은 훨씬 더 좋은 일입니다. 수도원이나 한적한 성당, 피정의 집 같은 곳은 기도와 성서 묵상, 대자연과 함께 하는 휴식과 성찰, 신앙 상담 등을 마련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개인 혹은 단체 피정을 할 수 있는 성공회 시설을 소개합니다

성가수도회(서울시 중구) / 성 프란시스 수도회(춘천시 남면, 양양시)
연수리 청소년 수련관(경기 양평군 용문면)
강릉교회 피정의 집(강릉시 초당동) / 강화도 한적한 작은 성당들(강화도)
성공회 여성선교센터(서울시 종로구 신영동)

* 피정 일정과 장소는 사전에 알아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번 주간 외울 말씀 9

여러분의 온갖 근심 걱정을 송두리째 하느님께 맡기십시오.
하느님께서서는 언제나 여러분을 돌보십니다(베드로전서 5장 7절).

교회소식

■ 알림

◆ 제2회 성서 암송대회 (범위: 시편 1편)

오늘(28일) 11시 성찬례 후에 바로 열립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함께 해 주세요.

◆ 8월 교회위원회

8월 4일(다음 주일) 1시 40분 / 어린이 예배실

◆ 소그룹 모임 (구역 모임)

오늘(28일) 암송대회 후에 모임을 가집니다.

◆ 금요 기도모임

8월 2일(금) 오후 7시에 있습니다.

◆ 청년회 여름수련회

일시: 8월 15일(목)~17일(토) / 군산

주제: 우리는 살아 있는 교회입니다!

청년회장과 우리 청년들, 박요계벧님이 열심히 청년회 수련회를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 산본교회 <전교우 여름수련회> 성료

전교우 수련회를 다녀온 우리교회가 더욱 친밀하고 사랑으로 가득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교우 수련회를 위한 준비팀의 노고와 수련회를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남부교무구 권역별 <여름성경학교> 성료

어제 수원교회에서 "빌드업 하느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2024년 여름성경학교가 열렸습니다. 우리교회에서는 박휘데스 선생님과 함께 이하린, 유아윤, 유아현 어린이가 참여하였습니다. 하느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녀로 성장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 서울교구 어머니연합회 전체수련회

일시: 8월 27일(화) 오전 10시 30분 / 주교좌성당

■ 교우 소식

◆ 생일을 축하합니다

홍양금, 장재현(31일) 이숙영(8월 3일)

지난주일 봉헌 내역

■ 십일조 • 월정헌금 370,000원

김준우/조장은 임혜지 장성한 정국진/이숙영

■ 주일헌금 27,000원

고미순 임혜지 장성한 장재현 장태현

■ 감사헌금 910,000원

전교우 수련회 감사: 고미순 김운권/홍양금
김준우/조장은 류한신 무명 박선희/백남진
박종례 유군상 유정훈/김승현 윤희진/최용욱
이동우 이서현 이요한 이원주 이윤식 이은가
정국진/이숙영 정연창/박순호 채희영 최순덕
최용준신부/백기은 허재원
조준행신부(건강)

■ 특별헌금 2,210,000원

수련회 후원: 류한신 임광호 최용욱
장성한(수련회비)

<성공회 산본교회 봉헌 안내>

신한 100-033-428656 대한성공회 산본교회

◆ 주간전례독서 (7월 29일~8월 3일/연중 17주간)

	독서	복음
29일(월)	히브 2:10-15	요한 12:1-8
30일(화)	예레 14:17-22	마태 13:36-43
31일(수)	예레 15:10, 16-21	마태 13:44-46
1일(목)	사도 12:1-11	마태 19:27-30
2일(금)	예레 26:1-9	마태 13:54-58
3일(토)	예레 26:11-16, 24	마태 14:1-12

※ 기도해 주세요 ※

◆ 우리교회를 기억하며

- 기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 어려운 교우와 환우 교우를 위하여

강영욱 권영분 기필순 김길자 김승숙 김옥현
박종례 박순호 안병순 임광호 이성중 이연학
유군상 유정환 조준행 신부 정시원 채희발 한명숙

◆ 해외 체류

김보미 조민규 조이준 방유미 이형석 디아나
이주안 임인택